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그들이 오해한 이유

(마 22:23-33)

The Reason why the Sadducees were in Error

(Matt. 22:23-33)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한 마디로 귀족 계급입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부류였습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든 유대교 분파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너무도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나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통속이 됩니다(마 16:1).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7형제 중 맏형이 아내를 얻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살다가 죽었고, 그래서 밑에 동생이 또 그랬고, 그런 식으로 7형제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모든 유대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29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30-32절)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셔서 이기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 인생의 모든 과정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사두개인들은 유치한 수수께끼는 예수님께 작은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우습지도 않은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부활을 논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사두개인들보다는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보수적이고 정확하고 지식의 폭도 컸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 너무도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논리에 가두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Sadducees insist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They were the aristocratic class. They were people who thoroughly embraced the Greek culture, joined hands with Roman Government, and wanted to live their lives only to enjoy good things physically. They outwardly acted as spiritual people, but in fact they were completely absorbed in secularism. The Sadducees had a bad relationship with the offshoot of Judaism, and especially they had a worse relationship with the Pharisees. Nevertheless,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who did not get along with one another, killing Jesus played into each other's hands (Matt 16:1).

The Sadducees asked a question to Jesus, "You teach that there is a resurrection, but in the Law of Moses, if a man dies, his younger brother must be responsible for his brother's wife. The first oldest of seven brothers married, had no children, and died. So, the second lives with his brother's wife and died. The same thing happened to the second and third brother, right on down to the seventh.

If so, whose wife is the woman in the kingdom of heaven?" Such a question can make the Jewish people close their mouth. However, Jesus replied, "You are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f the power of God" (v. 29). And soon Jesus says, "At the resurrection people will neither marry nor be in given marriage: they will be like angels in heaven. But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vv. 30-32).

This incident does not mean that Jesus argued with the Sadducees and won the argument. It is Jesus who leads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world, all process of life, the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The childish puzzle of the Sadducees cannot reach even confuse Jesus. And there, the Sadducees before Jesus talked about the resurrection with the ridiculous knowledge and logic.

The theme of the text is about the resurrection. Even though we all die, when Jesus comes again, such a thing will hap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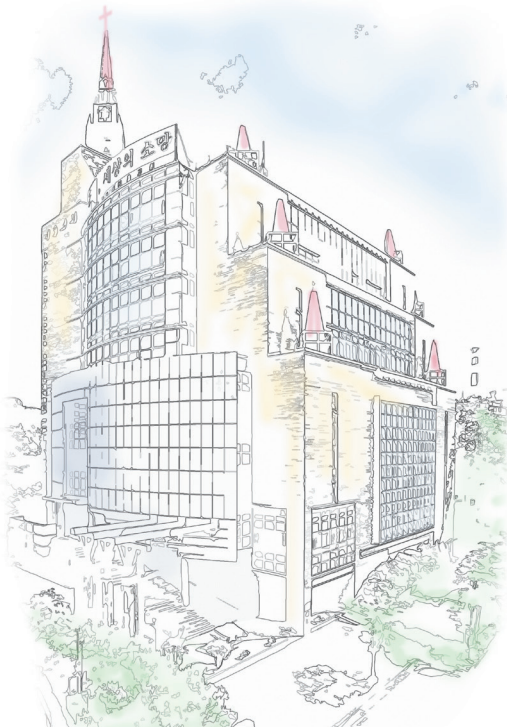
"For the Lo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with a loud command, with the voice of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call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After that, we who are still alive and left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will be with the Lord forever (1 Thess 4:16-17).

In a rough way, the Pharisees were much more conservative and correct than the Sadducees in analyzing the Old Testament. Their range of knowledge was extensive, but about the resurrection, they had a much limited knowledge.

My beloved Christians,

Do we also live our life by misunderstanding Jesus' word like the Sadducees and the Pharisees? Do we confine Jesus word in human's logic and translate it as we like?

By reading, meditating, studying God's wor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grow in the knowledge of knowing God's great power and lov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년 순결서약식

신청 및 교육 : 부서별로 / 서약식 : 4월 5일(주일)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2015년 순결서약식이 4월 5일(부활절)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 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과 성도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기념품”이 주어진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해당 교육부서에 신청하기 바라며, 3월 둘째 주까지 부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교육위원회 서기에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2015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 10월 11일(주) - 교회학교별 / 본선 : 10월 16일(금)

범위 :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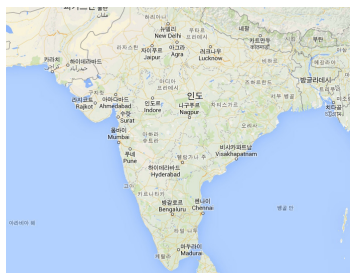
2015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오는 10월 16일(금)에 열릴 예정이다. 범위는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성도의 영성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귀한 일이다. 대회시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차근차근 암송하여 주제별로 선정된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맡길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 바란다. 예선은 10월 11일(주)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한다.

2015 하계 비전트립

기간 : 8월1일(토)~8일(토) / 인도 나가나할리



2015년 하계 비전트립팀이 확정 되었다. 선교지는 이상식(김정옥) 선교사가 사역하는 인도 나가나할리 교회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7박8일간이다. 지도는 서준권 목사, 단장은 박종권 집사이며 예상경비는 1인당 150만원이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3월 29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찬양대원 세미나

3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 웨스트민스터홀

찬양대원 세미나가 '예배와 음악'이라는 주제로 3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는 임영만 명예교수(호남신학교)가 선다. 모든 찬양대원 및 그레이스 핸드벨, 아멘관현악단 대원 모두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강사 임영만 교수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임영만 교수

- 경희대학교 작곡과 및 조선대학교 대학원
- 미국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종교음악 박사)
-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 대학원장 역임
- 광주광역시 합창연합회 및 한국 합창총연합회 이사 역임
- 한국 교회음악학회 학술분과위원장 역임
- “교회음악개론”, “교회음악행정”, “교회음악의 이해”등 6권의 저서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고은옥(0.5) 진교남.김희옥(0.5) 한건수.유안순(0.5) 예치수.장영순(0.5) 이지은(15(1))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김원중 이갑연 (0.5) 이홍재 김명애 (0.5) 장윤기 노애리(1) 한건수 유안순 (0.5) 엘리야선교회(1) 이삭선교회(1)

비전2020 후원자

이갑연(2) 김성은.성경.요한(2) 양득춘.최혜인(2) 이한룡(1) 황재연(1) 진돈(1) 한은경(1) 이상욱.장성자(1) 예치수.장영순(1)

부활절기 시 공모

순례자 편집부에서 청·장년을 대상으로 사순절 묵상시, 종려주일시, 부활절시 각 1편씩을 공모합니다. 모집 마감은 3월 13일,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됩니다.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0)

(문 160)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사건 이전인지 이후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마태복음 21:12-17에 의하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즉시 성전으로 가시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시어 쉬신 후 이튿날 아침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11-19에 의하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19:45-46에서 성전에 들어가신 후 청결케 하신 얘기만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상충된 순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해한 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사들은 마가나 누가복음과 달리 연대기적이라기보다는 주제중심으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상보훈의 말씀도 마태복음에서는 5장-7장에 모아 놓고 단번에 하신 설교로 되어 있으나 누가복음(6:20-49)이나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3년 사역기간 중 여기저기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제를 따라 논리적으로 함께 모아놓은 마태는 13장에서 천국비유를 8개나 함께 있게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마21:12, 막11:11) 주님은 성전 뜰을 보시면서 그가 3년 전에 보셨던 똑같은 광경을 발견하시게 되었습니다.(요213-17)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쉬신 후 다음날 아침 무화과나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 것이 마태기사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신 종려주일 오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는 연대기적 기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으로 들어가 청결케 하신 것이라면 마태는 주제별 기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성전청결은 주일 오후에 한 것처럼 설명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공생애 초에 하신 것처럼 공생애 마지막에도 주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만민에게 전도 - 비전트립

우리는 그곳에 가야합니다



박종권 집사
(인도비전트립팀
단장)

2015년 여름비전트립 사역지가 우상식(김정옥)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인도 나가나할리교회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교일정은 8월1일 ~ 8월8일까지 7박8일간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80.5%가 힌두교인이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2.3%로 그것도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다. 힌두교의 영향으로, 계급제도의인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그 영향아래 살고 있으며 최하층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하다고 합니다.

계급제도의인 카스트제도가 인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이유는 자신의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힌두교 영향 때문입니다.

잘못된 우상숭배로 인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는채 영적으로 척박하고 어둠속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야합니다. 가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어린이 사역, 의료사역, 지역섬김 등의 사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요 경비는 일인당 항공료, 숙박비, 선교활동비용을 포함하여 15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번 비전트립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29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비전트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선교대학을 수료해야 됩니다. 미수료자는 3월2일(월)에 이미 시작된 세계선교대학을 수강해야 합니다.(세계선교대학 4/27까지 매주월요일 7시 602호)

영적으로 척박한 땅 인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봄이 왔어요

하나님의 작은 씨앗

이선화 성도 (11교구)



사랑하는 서진이에게...
보고 있어도 늘 보고 싶고
함께 있어도 늘 그리운 사랑하는 딸 서진아
오늘 드디어 서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 하였고
가끔씩 언니 따라 놀러 오던 초등학교에 이제는
서진이가 입학식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친구들과 의젓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가슴 한 칸이 뭉클하기도 하고 흐뭇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서진이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서진이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서진이의 삶이 되기를
엄마는 항상 기도 할게 그리고 순간 순간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열심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서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서진이의 입학축하한다.

서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사순절의 기도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홍일성 집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독생자가 죽음 만큼
우리 죄가 크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주님의 순종을 알게 하시옵소서.

금훔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만큼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이웃에게 전하며 행함이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주님의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영어예배부 소속 네팔인 부부 우송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



Binayak Bhandari, Pratibha Bhandari 부부와 아들 Ebenezer

우리교회 영어예배부 소속 비나약 반다리 박사(Binayak Bhandari, Ph. D.)와 프라티바 반다리 박사(Pratibha Bhandari, Ph. D.) 부부가 지난 3월 1일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교 조교수로 부임되었다. 비나약 박사와 프라티바 박사 두 사람은 네팔인으로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각각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반다리 부부는 2007년부터 서울교회 영어예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에벤에셀(Ebenezer)이라는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 같은 대학교에 외국인 부부가 동시에 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비나약 박사는 “우리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서울교회 성도들과 나는 따뜻한 교제와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영의 양식은 우리 부부가 주님을 좀더 가까이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반다리 교수 부부를 축하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서는 이들 부부가 네팔의 복음화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대한다.


주님, 비나약 반다리와 프라티바 반다리 부부가 네팔과 그 국경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게 하소서!

군중목사후보생 수련회


3월 10일(화) 오전 10시, 602호

군중목사후보생 수련회가 3월 10일(화) 오전 10시 602호에서 모인다. 이날 11시에 박노철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B.M.W. 운동 동참합니다



Bus



Metro



Walking



2월 24일(화)에 있었던 권사회 연합 수련회와 강사 주선에 교수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월10일(화) 사무엘 마켓목사 추모 예배, 3월11일(수) 한국로잔위원회월례모임에 각각 참석한다. 3월14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22차월례회 18차신학특강모임을 소집한다.

- 득남 : 3교구 이경진 성도 하영인 집사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의 장녀 가정)
- 득녀 : 5교구 김민철 집사 배유리 집사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 선교회(3.8) 베드로 선교회(3.15)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2월 27일(금)~28일(토)에 있었던 교육1국 겨울 성경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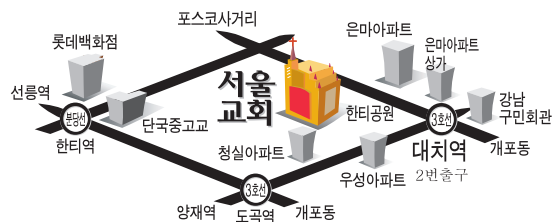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절기가 되도록
2.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3. 군중목사후보생 수련회와 찬양대원 세미나를 위해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